

SAEROUN QT

2026
09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빌립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마을에서 하루 만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며, 열병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자기들 마을에만 머물러 주시기를 청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주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풍성하면 “여기가 좋아오니” 하며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주의 종들은 조건 좋은 곳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도 부흥의 절정에서는 그런 영적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다른 지역으로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이웃과 열방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버나움을 떠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당시 갈릴리 연안에는 2백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곳을 예수님이 오직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곳들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들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계속 계셨더라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에게 책임을 미루고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가버나움을 육체적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먼저 복음을 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의 손과 발 되어 가버나움 사역을 이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 불모지는 끊임 없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블루오션을 끊임없이 찾아가야지, 이미 만دن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 야성을 잃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복음은 밖으로 계속 흘러갈 때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 과감하게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는 모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든파이프 새 성전으로 입당하면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온 미션얼 처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전략으로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202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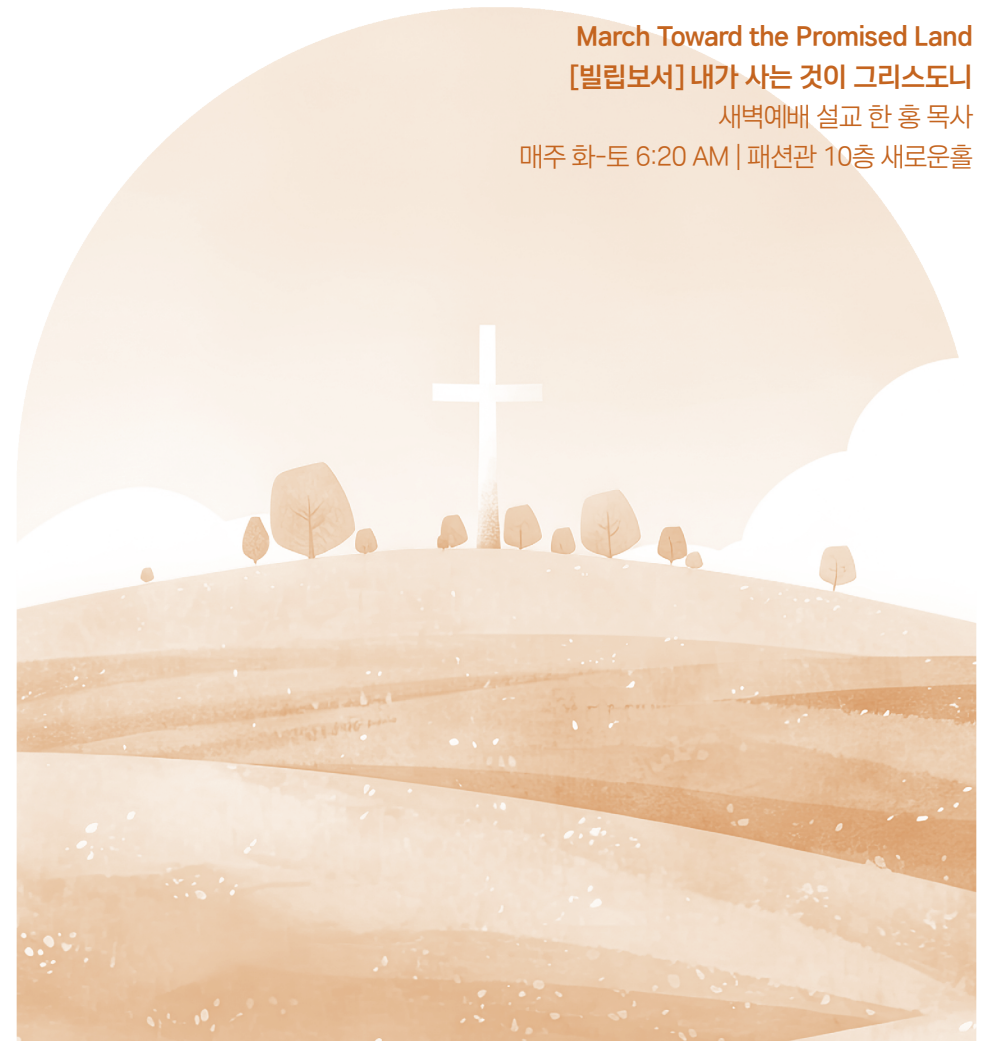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빌립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2026.
09

SAEROUN

QT

주일	월	화	수
30	31	1	2
6	7	8	9
결혼교실 개강 창립 17주년 기념축제		공동체 개강예배	공동체 개강예배
13	14	15	16
한우들을 위한 기도회			
20	21	22	23
27	28	29	30

목	금	토	
3	4	5	
		신임순장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10	11	12	
에버그린스쿨 개강 공동체 개강예배		순장 훈련 개강	
17	18	19	8 AUGUST
	금요찬양집회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4	25 추석	26	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6.
09

1	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빌 1:1-5
2	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빌 1:6-8
3	목	바울의 기도	빌 1:9-11
4	금	복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라	빌 1:12-14
5	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빌 1:15-18
6	주일	[창립17주년 기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 84:1-12
7	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엡 2:19-22
8	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 1:19-26
9	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 1:27-30
10	목	하나 됨의 열쇠 겸손	빌 2:1-4
11	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 2:5-11
12	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13
13	주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3-17
14	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눅 19:1-10
15	화	원망과 시비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빌 2:14-18
16	수	진실한 동역자 디모데	빌 2:19-24
17	목	생명을 건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빌 2:25-30
18	금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	빌 3:1-11
19	토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빌 3:12-16
20	주일	금식 논쟁	막 2:18-22
21	월	마음에 새겨 주신 새 언약	렘 31:31-34
22	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빌 3:17-4:1
23	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 4:2-7
24	목	[추석 연휴] 배부른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신 8:10-20
25	금	[추석]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	눅 17:11-19
26	토	[추석 연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골 3:12-17
27	주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막 2:23-28 & 막 3:1-6
28	월	매임에서 풀어 주시는 안식일	눅 13:10-17
29	화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9
30	수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	빌 4:10-13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하심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빌 1:1-5

- 1 그리스도 예수와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Paul and Timothy, servants of Christ Jesus, To all God's holy people in Christ Jesus at Philippi, together with the overseers and deacons: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빌 1:6-8

-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
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
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It i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all of you, since I have
you in my heart and, whether I am in chains or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열
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God can testify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바울의 기도

빌 1:9-11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for the day of Christ,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복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라

빌 1:12-14

-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Now I want you to know, brothers and sist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actu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As a result, it has become clear throughout the whole palace guard and to everyone else that I am in chains for Christ.

-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And because of my chains, most of the brothers and sisters have become confident in the Lord and dare all the more to proclaim the gospel without fea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빌 1:15-18

-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It is true that some preach Christ out of envy and rivalry, but others out of goodwill.

-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The latter do so out of love, knowing that I am put here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The former preach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 not sincerely, supposing that they can stir up trouble for me while I am in chains.

- 18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But what does it matt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 84:1-12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LORD Almighty!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
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My soul yearns, even faints, for the courts of the LORD; my heart
and my flesh cry out for the living God.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
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Even the sparrow has found a home, and the swallow a nest for
herself, where she may have her young — a place near your altar,
LORD Almighty, my King and my God.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they are ever praising you.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이 있나이다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age.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k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the autumn rains also cover it with pools.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
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They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till each appears before God
in Zion.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
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Hear my prayer, LORD God Almighty; listen to me, God of
Jacob.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Look on our shield, O God; look with favor on your
anointed one.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
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a thousand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the wicked.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
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
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For the LORD God is a sun and shield; the LORD bestows
favor and honor;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from
those whose walk is blameless.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다
LORD Almighty,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you.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엡 2:19-22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stranger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also members of his household,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 1:19-26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God's provision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what has happened to me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If I am to go on living in the body, this will mean fruitful labor for me. Yet what shall I choose? I do not know!

- 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I am torn between the two: I desire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but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that I remain in the body.

-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Convinced of this, I know that I will remain, and I will continue with all of you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rough my being with you again your boasting in Christ Jesus will abound on account of 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 1:27-30

-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Whatever happens,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Then,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only hear about you in my absence,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the one Spirit, striving together as one for the faith of the gospel

- 28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without being frightened in any way by those who oppose you. This is a sign to them that they will be destroyed, but that you will be saved—and that by God.

-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For it has been granted to you on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i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 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since you are going through the same struggle you saw I had, and now hear that I still hav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 됨의 열쇠 겸손

빌 2:1-4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Therefore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any common sharing in the Spirit,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the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of one mind.

-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Rather, in humility value others above yourselves,

-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s but each of you to the interests of the other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 2:5-11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 9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nd every tongue acknowledge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13

-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3-17

-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Once again Jesus went out beside the lake. A large crowd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Jesus told him, and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aw him eating with the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눅 19:1-10

- 1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cause he was short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 7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the amount."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원망과 시비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빌 2:14-18

-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ing,

-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so that you may become blameless and pure, "children of God without fault in a warped and crooked generation." Then you will shine among them like stars in the sky

- 16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as you hold firmly to the word of life. And then I will be able to boast on the day of Christ that I did not run or labor in vain.

-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But even if I am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and service coming from your faith, I am glad and rejoice with all of you.

-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So you too should be glad and rejoice with 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진실한 동역자 디모데

빌 2:19-24

-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
람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I hope in the Lord Jesus to send Timothy to you soon, that I also
may be cheered when I receive news about you.

- 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I have no one else like him, who will show genuine concern for
your welfare.

- 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
하지 아니하되

For everyone looks out for their own interests, not those of
Jesus Christ.

- 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
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
니라

But you know that Timothy has proved himself, because
as a son with his father he has served with me in the work
of the gospel.

- 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I hope, therefore, to send him as soon as I see how things
go with me.

- 24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And I am confident in the Lord that I myself will come
soo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생명을 건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빌 2:25-30

-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But I think it is necessary to send back to you Epaphroditus, my brother, co-worker and fellow soldier, who is also your messenger, whom you sent to take care of my needs.

-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For he longs for all of you and is distressed because you heard he was ill.

- 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Indeed he was ill, and almost died. But God had mercy on him, and not on him only but also on me, to spare me sorrow upon sorrow.

-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Therefore I am all the more eager to send him, so that when you see him again you may be glad and I may have less anxiety.

-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So then, welcome him in the Lord with great joy, and honor people like him,

-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because he almost died for the work of Christ. He risked his life to make up for the help you yourselves could not give 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

빌 3:1-11

-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Further, my brothers and sisters, rejoice in the Lord! It is no trouble for me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again, and it is a safeguard for you.

-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Watch out for those dogs, those evildoers, those mutilators of the flesh.

-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For it is we who are the circumcision, we who serve God by his Spirit, who boast in Christ Jesus, and who 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

-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though I myself have reasons for such confidence. If someone else thinks they have reasons to put confidence in the flesh, I have more:

-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of the peopl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in regard to the law, a Pharisee;

-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as for zeal, persecuting the church; as for righteousness based on the law, faultless.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But whatever were gains to me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I consider them garbage, that I may gain Christ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on the basis of faith.

-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I want to know Christ—yes,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participation in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and so, somehow, attaining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궂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빌 3:12-16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arrived at my goal,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Brothers and sist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 14 궂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All of us, then, who are mature should take such a view of things. And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that too God will make clear to you.

-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 이라

Only let us live up to what we have already attain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금식 논쟁

막 2:18-22

-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 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 식하지 아니하나이까

Now John's disciples and the Pharisees were fasting. Some people came and asked Jesus, "How is it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are fasting, but yours are not?"

-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 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They cannot, so long as they have him with them.

-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Bu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fast.

-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 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No one sews a patch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Otherwise, the new piece will pull away from the old, making the tear worse.

-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 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therwise,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both the wine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they pour new wine into new wineskins."

마음에 새겨 주신 새 언약

렘 31:31-34

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people of Israel and with the people of Judah.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It will not be like the covenant I made with their ancestors when I took them by the hand to lead them out of Egypt, because they broke my covenant, though I was a husband to them," declares the LORD.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 people of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 in their minds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No longer will they teach their neighbor, or say to one another, 'Know the LORD,' because they wi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declares the LORD. "For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빌 3:17-4:1

-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Join together in following my example, brothers and sisters, and just as you have us as a model, keep your eyes on those who live as we do.

-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For, as I have often told you before and now tell you again even with tears, many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Their destiny is destruction, their god is their stomach, and their glory is in their shame. Thei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who, by the power that enables him to bring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Therefore, my brothers and sisters, you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stand firm in the Lord in this way, dear friend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 4:2-7

-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I plead with Euodia and I plead with Syntyche to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 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Yes, and I ask you, my true companion, help these women since they have contended at my side in the cause of the gospel, along with Clement and the rest of my co-work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배부른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신 8:10-20

- 10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When you have eaten and are satisfied, praise the LORD your God for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failing to observe his commands, his laws and his decrees that I am giving you this day.

-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Otherwise, when you eat and are satisfied, when you build fine houses and settle down,

-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and when your herds and flocks grow large and your silver and gold increase and all you have is multiplied,

-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then your heart will become proud and you will forget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He led you through the vast and dreadful wilderness, that thirsty and waterless land, with its venomous snakes and scorpions. He brought you water out of hard rock.

-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He gave you manna to eat in the wilderness, something your ancestors had never known, to humble and test you so that in the end it might go well with you.

-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You may say to yourself, "My power and the strength of my hands have produced this wealth for me."

-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But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and so confirms his covenant, which he swore to your ancestors, as it is today.

-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If you ever forget the LORD your God and follow other gods and worship and bow down to them, I testify against you today that you will surely be destroyed.

-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Like the nations the LORD destroyed before you, so you will be destroyed for not obeying the LORD your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

눅 17:11-19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Now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traveled along the border between Samaria and Galilee.

-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As he was going into a village, ten men who had leprosy 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 기소서 하거늘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When he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One of them, when he saw he was healed, ca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 리아 사람이라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and he was a Samaritan.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 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Jesus asked, "Were not all ten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nine?"

-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Has no one returned to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 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Then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골 3:12-17

-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Therefore,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one another if any of you has a grievance against someone.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 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막 2:23-28 & 막 3:1-6

[막 2:23-28]

-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and as his disciples walked along, they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The Pharisees said to him, "Look, why are they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He answered,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and in need?"

-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In the days of Abiathar the high priest,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consecrated bread, which is lawful only for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Then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막 3:1-6]

-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Another ti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a man with a shriveled hand was there.

-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Some of them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him on the Sabbath.

-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Jesus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Then Jesus asked them,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kill?" But they remained silent.

-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and, deeply distressed at their stubborn hearts,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stretched it out,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began to plot with the Herodians how they might kill Jesus.

매임에서 풀어 주시는
안식일

눅 13:10-17

-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On a Sabbath Jesus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 11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
-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eighteen years.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straighten up at
all.

- 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
- 놓였다 하시고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forward and said to her,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 13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
- 라

Then he put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straightened
up and praised God.

-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
-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
-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
- 하거늘

Indignant because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the
synagogue leader said to the people, "There are six days for work.
So come and be healed on those days, not on the Sabbath."

- 1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
- 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
- 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
-
- 냐

The Lord answered him, "You hypocrites! Doesn'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your ox or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it out to give it water?"

- 16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
-
- 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
- 합당하지 아니하냐

Then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has kept bound for eighteen long years, be
set free on the Sabbath day from what bound her?"

-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
-
- 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
-
- 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When he said this, all his opponents were humiliated, but
the people were delighted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he was doing.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9

-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think about such things.

-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

빌 4:10-13

-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I rejoiced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were concerned, but you had no opportunity to show it.

-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2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4주차

[illegible]

2026.
09

순예배 가이드

01

1. 9월 셋째 주 (9/13-19)

금식 논쟁 (막 2:18-22)

2. 9월 다섯째 주(9/27-10/3)

열두 제자를 세우시다 (막 3:7-19)

WORSHIP

01

[순예배 가이드] 9월 셋째 주(9/13-19)

금식 논쟁

막 2:18-22

지난주 본문 요약 |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3-17)

예수께서 알패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며 교제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Now John's disciples and the Pharisees were fasting. Some people came and asked Jesus, "How is it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are fasting, but yours are not?"

* **금식(18절):** 종교적 계율이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 일입니다. 경건한 신앙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관찰/해석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They cannot, so long as they have him with them.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Bu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fast.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No one sews a patch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Otherwise, the new piece will pull away from the old, making the tear worse.

* **생베(21절):**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빨지 않은 '베'로, 신축성이 강해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관찰/해석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
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therwise,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both
the wine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they
pour new wine into new wineskins.”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남에게 보이려는 외식의 신앙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높이는 삶을 살
게 하옵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
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3.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틀이 완전히 새로워져, 새 생명과 새 부흥의
시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WORSHIP

02

[순예배 가이드] 9월 다섯째 주(9/27-10/3)

열두 제자를 세우시다

막 3:7-19

지난주 본문 요약 |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막 2:23-28 & 3:1-6)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지적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lake, and a large crowd from Galilee followed.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When they heard about all he was doing, many people came to him from Judea, Jerusalem, Idumea, and the regions across the Jordan and around Tyre and Sidon.

* **이두매(8절):** '에돔'의 헬라식 표현으로,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며, 그의 후손이 세운 민족을 일컫는데,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을 근거지로 산악 지대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관찰/해석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Because of the crowd he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small boat ready for him, to keep the people from crowding him.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 이더라

For he had healed many, so that those with diseases were pushing forward to touch him.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Whenever the impure spirits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and cried out, "You are the Son of God."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 하시니라

But he gave them strict orders not to tell others about him.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니 나아온지라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관찰/해석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He appointed twelve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These are the twelve he appointed: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 나나인 시몬이며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Thaddaeus, Simon the Zealot

19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음을 믿고,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3:14-15]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2026.
09

뉴젠 여름성경학교 간증

01

1. 이지원J 성도(N서초 공동체)
2. 이미영D 성도(E강남 공동체)
3. 고서윤 학생(뉴젠 유년부)
4. 임소연 학생(뉴젠 초등부)
5. 이세현B 학생(뉴젠 중등부)
6. 백지우B 학생(뉴젠 고등부)
7. 최예담 학생(뉴젠 주니어)
8. 빈예하 학생(뉴젠 YEM)

GO! GO! Let's Go!

이지원J 성도(N서초공동체)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기대와 설렘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소천하신 아빠의 암 진단을 받은 것이 작년 성경학교가 끝난 직후였기에,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의 성전이전과 성경학교 준비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지난 여름,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문득문득 떠올라 무거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올해 성경학교는 미취학 연합으로 진행되어 역할 분담이 많이 이루어졌고, 전도사님들의 빈틈없는 준비와 여러 선생님의 수고로, 비교적 적은 부담을 느끼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에게 영아부 교사는, 섬김이라기보다 은혜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 엄격·근엄·진지한 분으로 알아 왔던 하나님에서 한없이 다정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가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매주 새롭게 배우고 있기에, 섬김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은혜를 받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도 역시, 다시 한번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새로운 활을 가득 메운 피크닉 돛자리와 그 위에 기쁨과 기대감으로 신나 있는 우리 아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한 오프닝과 클로징 예배는 단지 새로운 성전에서의 예배라는 감격 이상의 감동과 기쁨이었습니다.

“어두운 길에도 하나님 손 꼭 잡고 씩씩하게~~” 몸치임에도 찬양팀으로 서느라, 혼자 울동을 틀릴세라 집중하지 못하고 연습했던 찬양의 가사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그 시간에도 내 손을 꼭 잡아주셨지…….” 하고, 어느새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었고,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부모님들과 함께 한 기도회와 선생님들의 수고로 완성된 연극과 블랙라이트 공연 모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이들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활동을 하며 전해준 메시지는 아이들뿐 아니라, 제 삶에도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가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 없겠지만, 성경학교를 통해 체험한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진 친구들로, 또 늘 함께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따라가는 용감하고 씩씩한 예수님의 군사로 모두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미영D 성도(E강남공동체)



새 성전에서 다같이 드리는 첫 여름성경학교. 그것도 올해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기에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방패 옷을 만들어 입고, 갈라진 요단강을 가로질

러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며, 서둘러 토요일 근무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늦게 도착한 여름성경학교는 이미 마술쇼로 무려져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눈으로 뉴젠에서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선물들과 함께 앉아 있는 아이를 반갑게 만나고 드디어 저도 그토록 기대하던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줄까 예배시간에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마음에 아이들만큼이나 두근거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진 강정현 사모님의 부모 교육 시간은 로이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다짐과는 달리 경쟁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선택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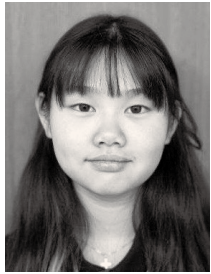
가 곧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담았지만, 돌아보니 그 마음과 달리 내가 그동안 내린 선택과 행동들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불안감에 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세상과 그저 똑같이 키우며, 아니 어쩌면 똑같아지려고 쫓아가느라 허덕이며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때쯤, 마지막 부모로서의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정말 크게 반성했습니다. 얼마나 큰 깨달음과 울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창조.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의 찬양과 울동.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잔치 같은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눈과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 뉴젠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보호받고 있다는 그 안정감과 따뜻함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후속 가정성경학교 과정도 신나게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걷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걷고 있지만 더 믿음으로 걷게 해 주세요.” 그 순수한 아이의 기도처럼 저도 더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고서윤 학생(뉴젠 유년부)



저는 매년 여름성경 학교를 갔어서 이번 에도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작하기 전에는 예배보다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첫날 아침 예배 찬양 시작 때,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팔을 쭉 뻗고 찬양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크게 찬양을 하고, 크게 노래를 부르면 눈치 보이고 쑥스러울까 봐 항상 크게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예배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크게, 크게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찬양할 때 “사랑한다 말하시네”의 가사와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사용하신다”는 내용에 크게 울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죄도, 실수도 많고, 쓸모없는 나를 사용하시는구나’와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주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기도를 할 때 말이 잘 안 나왔을 때도 있지만, 사탄이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

고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려가라고 했더니, 기도를 다시 드릴 때 더욱더 집중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제 옆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한 곡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이 더욱 커지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임소연 학생(뉴젠 초등부)



이번이 제 첫 여름성경학교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신났고, 또 저녁 예배 때 성령님이 제 안에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나온 적은 처음인데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처음을 경험하게 해주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예배했던 영광의 이틀이었습니다.

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제 마음을 공격하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성령의 불로 없어지며, 오직 하나님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누구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머리가 아파 기도하니 안 아프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전부인 하나님께 제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즐겁게 놀고, 신나게 웃고, 진심으로 예배한 날이었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제 목표이자 다짐이자 소원은 숨 쉬듯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세현B 학생(뉴젠 중등부)



저는 항상 수련회에 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왔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픈 곳이 치유되고 모든 힘들과 고난이 해결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저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일 차 저녁집회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듯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신가요? 저를 도우시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2일 차 저녁집회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아직 여리고 성을 도는 중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 몇세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아직 도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던 것은 저의 교만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하시고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게 찾아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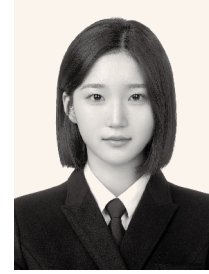
중등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수련회가 이렇게 뜨거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실 다른 수련회장으로 가 2박 3일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매주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에 많은 아

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회가 끝나고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할 때 정말 그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위십을 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바라봤는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중등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수련회라는 사실에 눈물이 끓어올랐습니다.

함께 뛰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소중한 친구들, 선생님들과 은혜 가운데서 여름수련회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백지우B 학생(뉴젠 고등부)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약해진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바랐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삶 속으로 돌아

가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주님을 찾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고 점점 신앙이 무너지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힘들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주일에 교회를 빠지며 그 많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저와 동행해 주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둘째 날 오전 강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똑같이 받길 원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저녁집회 때 저는 겨울수련회의 그 뜨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겨울수련회 때만큼의 뜨거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도 좋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발 주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을 느끼고 인지하며,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항상 말만 앞서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자,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도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끄러운 마음에 나조차도 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저도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이 더욱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을 보내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심을 제가 믿고 매일 주님을 찾으며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제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최예담 학생(뉴젠 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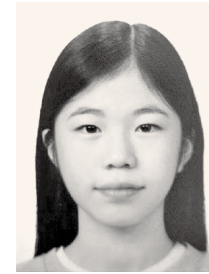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조를 나누어 게임을 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 같아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이끈 것처럼 저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Trusting God Even When I Can't See

빈예하 학생(뉴젠 YEM)



This year's summer retreat is truly a retreat to remember. I came prepared to do activities and praise God, but it became far more than that. What stuck with me the most was praying on the second night. The past year has been mentally challenging. Grades, relationships, and school in general have been really difficult for me. Pastor said that God is always there for me through both the highs and the lows and that His plan is not over for me. The walls of Jericho remained standing without any visible change until the final day, but the Israelites trusted God's Word, continued walking around the city even when nothing seemed to change, and finally saw the walls fall. However, there were many times I felt that God wasn't there for me, especially when I was alone at school or when all my friends cut me off. After hearing Pastor's words and praying, I realized that it was all part of God's plan. Although it took me a long time to realize that, I am glad that I know now, so I can trust God whether I am thriving or sinking. This retreat will also stay in my memory because of the effort the teachers put into it. The escape room and scavenger hunt must have taken a long time to make, and they even made the props from scratch. I am truly grateful for all the YEM teachers

and feel honored to be part of such a caring and supportive YEM community.

올해 여름수련회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여러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으로 수련회에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둘째 날 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적, 친구 관계, 학교생활 전체가 제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제가 잘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마지막 날까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 변화 없는 성을 계속 걸었고 무너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나 친구들이 모두 제 곁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제가 잘될 때나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 때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들인 수고 때문에도 이번 수련회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방탈출과 스캐빈저 헌트를 준비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소품들도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YEM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고 응원해 주는 YEM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TESTIMONY

새로운QT

4조 박성준

2026.
09

온라인 새로운교회

10조 원종숙

1조 김주동

9조 주정순

이재충 이

12조 김민영

2조 노갑균

10조 김지수

4조 인도자 류재준

3조 정재호

12조 김귀란 인도자

18조 박신영 인도자

1조 여상범

화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02

1. 방시원 성도(W서초공동체)

2. 염지연 성도(E강남공동체)

6조 이준

7조 김정훈

11조 이경옥B

4조 김종구

6조 오상근

17조 배근정 인도자

5조 김태수 인도자

2조 송보영

10조 손은주

18조 김예람

14조 부인도자 하지민

12조 박지현 부인도자

1조 정성호

11조 인도자 김희정

14조 민지현

15조 김효윤

12조 염지연

9조 장윤희

11조 안수경

10조 오순균

9조 박은영

92

18조 안수혜

19조 인도자 황나래

2조 곽권용

4조 양석원

10조 박단귀

16조_김경미_부인도자

2조 진호준

93

내가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

방시원 성도(W서초공동체)



저는 10년동안 미등록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2025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가족 등록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 줄 알았지, 성경

에 대해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알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와중에 CES 멘토님께서 커브가 정말 좋은 과정이라고 추천해 주셨고 저는 용감하게 커브를 신청하였습니다.

교재를 받고 성경을 몇 번이고 숙독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슨 말씀인지 10%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보석이 문헌 광산과 같아서 캐면 캐수록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저는 완전 곡괭이질도 못하는 초보자였나 봅니다. 분명히 한 글인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읽고 한 홍 목사님의 강해 설교 영상을 일주일 동안 몇 번이고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시간에 담당 목사님의 과정 소개가 있었는데 2시간의 말씀 나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고 아쉬움이 너무 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첫 시간을 참여해 보니 정말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처음으로 뵙는 조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강의에 참여해야 하는지 짧은 성경 지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자님께서 편안하고 쉽게 강의를 인도해 주셔서 약간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

니다. 첫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번 읽고 목사님 설교 영상을 몇 번 돌려보고 모르는 부분은 목상을 하면서 나만의 성경 속 보석을 캐려고 노력하였고, 강의 시간에 조원분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인도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숨은 뜻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고 그것을 얻는 것은 각 개인의 목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느껴졌던 사도행전의 28장 말씀들이 어떤 소설보다 재미있게 느껴졌고 닫혀 있는 글이 아닌 무한히 열려 있는 말씀이란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8주간의 짧은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접하는 방법에 대해 저의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왜 ‘바울, 바울’ 하는지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료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에는 29장이 있다는 말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9장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백지의 성경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내려 가는지, 제가 바울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새로운교회와 운영해 주신 담당 목사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성도님들, 4조 인도자님과 조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길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배운 담대한 믿음

염지연 성도(E강남공동체)



이번 커피 브레이크 화요반 신청을 망설이며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 동역자의 권면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했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

나 함께하는 자매님들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도행전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부 이후 오랜만에 하는 귀납적 성경 공부라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성경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인터넷 검색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원들의 깊이 있는 목상에서 나오는 나눔에 감탄만 하며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 먼저 기도와 성경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반복해서 목상하다 보니 지금까지 다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고 매주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 다양하고 풍성하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차원의 성경 공부 방법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음모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바울의 모습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동역자, 바울을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바울의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많았던 저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익명의 노방 전도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관계 전도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오히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복음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인 친구가 있는데 우연히 카톡으로 은혜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아침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님과 부인도자님, 조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커브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조원들 따뜻하게 사랑으로 리드해 주신 인도자님 두 분의 리더십 덕분에 사도행전 커브를 잘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나눠 주신 조원들 덕분에 더욱 풍성하고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 커브에서도 만나게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도행전1:8 말씀과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좀 더 부지런해지는 앞으로의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26.
09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간증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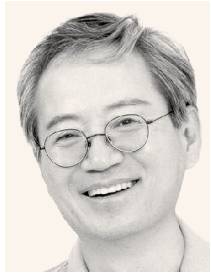
1. 이록윤 장로(W서초공동체)
2. 김경태B 집사(N서초공동체)

HOLY INDONESIA
2026 인도네시아 CES 현지인 사역자 대회

7월 27일(월)~31일(금), 인도네시아 보고르 Saeroun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록윤 장로(W서초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몽골을 가고 싶었지만, 또 청년 2부 담당이라 제주 선교를 청년들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은 8년 만에 다시 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습니다.

통역을 잘하시는 분이 적어서, 저는 현지 선교 사임을 붙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장로들은 한 인교회 장로들이 통역을 맡아 준다고 하여 실망감이 있었는데, 웬걸, 저를 통역을 해주시는 장로님은 동시통역이 가능하신 베테랑이셨고, 저를 위해 이번에 세움 받은 장로님이셨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5의 CES 멘토링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즉시로 통역을 해주어서, 우리는 요약본이 아니라 교재를 가지고 나눔도 하고, 질문에 대한 대화도 하면서 CES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멘티들도 그동안 일방적인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나눔이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제 멘티들은 모두 50대 중반의 현지 목회자들이시고, 사례비를 거의 받지 못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교회에 대한 챗터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교회란 단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의 교회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가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사신 두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통역을 맡은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70세가 넘는 권사님이신데, 두 분 모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을 선교로 부르신 곳이 바로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스텐신학교까지 세워서 현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마치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 같았습니다.

서만수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 세우신 이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선교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는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며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선교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서만수 선교사님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며,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에서 전한 하나님의 마음

김경태B 집사(N서초공동체)



선교를 가기로 결정한 날,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확신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물음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목회자들을 가르친다니...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도할 때조차 저는 그 두려움을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가서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미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러 나아갈 뿐이니, 제 준비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도, 제가 구하고 생각하던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도 두려움이나 걱정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다만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께 맡기며 조금 내려놓는 정도였습니다.

현장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통역을 맡아 주신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영적 상황과 현지 목회자들이 처한 현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 땅을 향한 선교적 시각과 이해가 깊어졌고, 멘티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최전선의 동역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리에 섰지만, 실제로 배운 사람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래플리, 돈프리, 오블레르, 요하네스, 재미, 로니. 제가 맡은 이 여섯 명의 멘티는 타 종교의 방해로 예배 처소

를 여러 번 옮기며 예배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과 무너진 건강,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결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 대신, 이렇게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기반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교의 야성을 잊은 채 편안하게 믿음 생활해 온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료식과 세수식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손을 씻겨 드리고 그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세요.”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각자의 ‘땅 끝’에서 배운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열방과 다음 세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며 이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도 후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였습니다.

돌아와 다시 일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는 그대로인데, 그때 받은 감동이 여전히 저를 그 땅으로, 그리고 제 앞의 사명으로 이끕니다. 여섯 분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예비하신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제게 새로이 주어진 것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을 중보하는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넘어 세계 열방 가운데 땀 흘릴 열매를 기대하면서, 저도 저의 ‘땅 끝’에서 그들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2026.
09

제주 국내선교 간증

04

1. 강준모 성도(S서초공동체)
2. 노윤하 성도(청년2부공동체)
3. 최하람 학생(뉴젠 중등부)

2026

JEJU OUTREACH
제주 아웃리치

8.12(수)~15(토)

은혜로 채우시고 자녀를 자라게 하신 주님

강준모 성도(S서초공동체)



최근 수년간 해외 선교에서는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경험이 있었지만, 정작 국내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억은 까마득할 정도로 오래되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

만 저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서는 마을 전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가나안교회 전도팀은 제주도 표선면 성읍 2리에 위치한 가나안교회 인근 주민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여니 오셔서 함께해 주세요”라고 정성껏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전도팀장님이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길 원하셨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전해져 가슴 깊은 눈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읍 2리보다 더 규모가 큰 성읍 1리를 방문했을 때는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처음 만난 분이 바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장님이셨습니다. 또한 노인회관에 들어가기 전 노인회장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등,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손길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3) 하신 말씀처럼, 돌이켜보면 초대와 전도하는 과정 모든 것이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주민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몸소 일하고 계심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마을잔치 당일, 새벽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신 섬김팀의 수고 덕분에 찾아오신 어르신들께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받으신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배우고 따라 부르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하신다는 확신과 영적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잔치 장소 바로 옆에서 진행된 한방 구역에서도 어르신들이 침을 맞으시며 전도팀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으셨고, 실제로 교회 출석을 약속하는 결신의 열매까지 맺어졌습니다. 전도팀으로서 안내와 식사등의 소소한 섬김을 이어가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저녁에는 서귀포강변교회 여름찬양집회에 참석하여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제주 지역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동안, 지쳐 있던 영혼이 새롭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 최우선으로 기도해 오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점입니다. 아이들은 여름성경학교와 가나안교회, 서귀포강변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송축하는 영적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첫째 하준이는 선교팀 간증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온전히 섬겨준 리더십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선교팀원이 함께 기뻐해 주셨고, 부모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영적 충만함과 회복을 선물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꼭 제주 선교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며 모든 영광을 살아 계신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노윤하 성도(청년2부공동체)



저는 직장 때문에 제주에서 약 2년 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제주선교를 준비하면서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이 나 살았던 곳인데도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주라는 땅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제주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가나안교회의 뉴젠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뉴젠팀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작은 일에도 함께 “으쌔으쌔”하고 기쁘게 섬기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뉴젼 사역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교회의 뉴젼 아이들과 새로운교회의 뉴젼 아이들이 함께 조를 이루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교회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선교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번 제주선교를 통해 저에게도 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고 싶어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멀리 있는 해외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한때 살아보았던 익숙한 제주에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를 제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순종의 기쁨과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마치고 제 마음에 작은 소망 하나도 생겼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다시 제주 선교에 오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그때는 가족과 함께 제주 땅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주선교를 통해 새로운 선교의 눈을 열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고 싶은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어디에 있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땅

최하람 학생(뉴젠 중등부)



저는 이번 제주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주 땅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선교 준비를 할 때 가족과 떨어져 혼자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이 좀 어색하고 외롭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며 다른 선교 대원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어색하고 외로운 감정이 사그라들고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선교에 같이 오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형과 누나들이 잘 대해줘서 감사했으며, 제가 직접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전도와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반면,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 그분들 하나하나 찾아오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금요찬양집회를 하며 예수님께서 서귀포강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제 자신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를 떠난다고 할 때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제주선교가 저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고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은혜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개강예배

2026-2학기

9월 8일(화)-10일(목) 저녁 7시 30분
문의 | 공동체 담당 교역자 및 총무

	9/8(화)	9/9(수)	9/10(목)
새로운울 (패션관 10층)	C강남	W강남	E강남
여호수아울 (영관 11층)	우면	W서초	S강남
사무엘울 (영관 10층)	N서초	E서초	N강남
다니엘울 (영관 10층)		S서초	강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4-16)

Saeroun
church

Wednesday Prayer Worship



9월 수요기도예배 예배

9/2 이상화 목사	9/9 조은영 목사
9/16 이아론 목사	9/23 김선교 목사
9/30 김정현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장소 새로운울(패션관 10층)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66 가든파이버 라이프 영관 10층 새로운교회 본당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